

# 게임룸·영화감상까지… 삶 즐기는 1인가구 위한 ‘거주 공간’

## 코리빙 하우스 ‘셀립’

내부 인테리어로 안락한 환경 조성은 평점 옥상 루프탑 북한산 전경 뷰 헬스장·시네마룸 등 시간제 운영 시설동선·공간구성 넓혀 독립화

“집이라는 공간을 가격적인 자산이나 투자의 의미에서 효율성만 중시하다 보니까 집이라는 공간이 잠만 자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잠만 자는 공간이라는 전통적 인식을 깨고 삶을 즐기는 거주 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코리빙 하우스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 ‘셀립’은 평점에서 만난 명성준 셀립 리드 매니저는 집이라는 공간을 자산이나 투자의 의미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 잠만 자는 공간에서 벗어나 삶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집의 모습. 바로 1인 가구 중심의 코리빙 하우스다.

셀립은 공유주거 전문 기업 우주프로퍼티매니지먼트의 코리빙 하우스 브랜드로, 서울에서만 4곳(셀립 은평, 셀립 가디, 셀립 여의, 셀립 순라)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코리빙 하우스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장점을 살린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주거 개념이다.

셀립의 사업 배경은 1인 가구의 지속



북한산이 멀리 보이는 셀립 은평 내부 객실.



영화감상실.

/안재선 수습기자

적인 증가는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 명성준 셀립 리드 매니저는 “대한민국의 인구수 50.5%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한국의 1인 가구 주거 공간이 굉장히 좁고 또 부족하다”고 전했다. 1인 가구 시대에 맞춘 새로운 주거 공간의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20년 31.7%에서 22년 3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직접 셀립 은평점에 방문해 보니 단순 세대 공간 확보 차원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다같이 사는 공동 주거 형태였지만, 혼자 있는 듯한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셀립 관계자는 “셀립의 주거 공간은 방해받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방해받지 않는 편안함. 그 분위기를

자아내는 첫 번째 요소는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였다. 명도는 높이고 채도는 낮춘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 책상과 의자, 가구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 팽하고 톡톡 튀는 색이 아닌, 차분하고 깔끔한 단색의 조명과 가구들이 한 데 어우러져 1인 가구만을 위한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셀립 은평에서 바라보는 자연 경관 또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크게 뚫린 창문 너머 북한산의 전경이 한 눈에 담겼다. 객실 내부 뿐만 아니라 건물 옥상 루프탑에서도 북한산의 전경이 한 눈에 크게 들어왔다. 셀립 은평의 시설 관계자는 “창을 좀 크게 크게 냈고 자연광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1인 주거인들을 위한 느슨한 연결도 눈에 띠는 특징이었다. 셀립 은평에는

응접실을 비롯해 영화감상실, 게임룸, 공유주방, 식당 등이 갖춰져 있었으며 헬스장과 그룹운동활동(GX) 시설도 갖춰져 있었다. 이 공간들은 모두 공용 공간이지만 시간제 운영을 통해 개인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시설 내부 동선과 공간 구성을 넓게 확보해 입주민들과 같은 공간을 써도 혼자 있는 듯한 느슨한 느낌을 자아냈다. 거주 비용은 원룸형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5만~70만원, 관리비 12만~15만원, 공동시설 사용비 5만원 까지 합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은 약 80만~90만원 정도다. 최소 3개월부터 한 달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다. 4인용 쉐어하우스인 맨션형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86만원이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s4187@metroseoul.co.kr

## 롯데리조트속초

### ‘카니발 삼바 페스티벌’

롯데리조트속초가 어린이 고객을 위한 상품을 선보인다. 롯데리조트속초는 7월 6일과 7일, 이를간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함께 ‘카니발 삼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메인 삼바 퍼레이드 쇼와 함께 어린이 고객을 위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롯데리조트속초에 따르면 삼바 퍼레이드 쇼에서 브라질 현지 삼바 무용수들이 화려한 의상과 함께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롯데리조트속초 앞 야외 공간에서 이를 간 저녁 8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된다.

호텔 숙박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객실 패키지 상품도 준비됐다. 숙박권 함께 아이들이 공주와 왕자로 변신해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린세스 오브 퍼레이드’와 객실 1박, 롯데월드 라이트 야광봉, 로티로리 인형으로 구성된 ‘삼바 투게더’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패키지 구매 고객 외 행진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 투숙객은 내달 6일에 진행되는 행사에 한해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안재선 수습기자



‘카니발 삼바 페스티벌’ 홍보 안내 사진.

/롯데리조트속초

## 애경, ‘스포트라이트’ 론칭

中서 프리미엄 제품군 경쟁력 강화 틱톡 더우인 등서 신제품 판매 시작

애경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애경산업은 지난 28일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랭주 문화예술센터에서 ‘한여름밤 빛의 함연’ 행사가 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애경산업의 화장품 브랜드 애이지투웨니스는 프리미엄 제품군 ‘스포트라이트’를 중국 시장에 선보였다.

‘스포트라이트’ 제품군은 애이지투웨니스 대표 제품인 ‘에센스 팩트’를 비롯해 ‘메이크업 베이스’, ‘프레스드 파우더’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애이지투웨니스 프리미엄 제품군 ‘스포트라이트’

특히 에센스 팩트는 광채 나는 피부를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제품으로, 피부의 결광, 수분광, 속광, 생기광 등을 완성해 준다는 것이 애경산업 층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 동아쏘시오그룹, 김민영·정재훈 사장 맞교환

지주사-사업회사 간 사장 트레이드

동아쏘시오그룹이 각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적임자를 배치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나선다.

30일 국내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동아쏘시오그룹은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김민영 사장은 경영 전문가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동아에스티 대표를 맡아 뉴로보, 앤티스 인수를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정재훈  
동아에스티

통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교류보를 마련하는 등 회사 성장에 앞장서 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 사장은 동아쏘시오홀딩스가 해야 하는 계열사 경영효율성 관리, 사업 포트폴리오 및 투자 전략 수립, 신사업 발굴, M&A 등 지주사 본연의 역할 수행을 이끌어 가게 됐다.

/이청하 기자

## 메디톡스 ‘톡신·필러’, 중동 진출 박차

UAE 테콤그룹과 생산공장 설립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성과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제약 기업 메디톡스가 중동 진출을 기시화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기업 테콤그룹과 보툴리눔 톡신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계약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앞서 지난 2023년 1월 메디톡스가 테콤그룹과 체결한 톡신 완제품 공장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사됐다. 당시 메디톡스는 윤석열 대통령 UAE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해 모범적 협력 사례를 만드는데 역량을 쏟았다.

/이청하 기자

## 대상웰라이프, 맞춤형 메디푸드 상용화

전북대학교병원과 양해각서 체결

대상웰라이프가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와 ‘맞춤형 기능성식품 및 메디푸드 상용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체결식은 지난 28일 전북대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에서 이진혁 대상웰라

이프 FM MI실장과 채수완 전북대병

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 지원센터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분야에서 국내 식품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인체적용시험 및 임상연구

▲식품·임상 DB 활용 마이크로바이옴 발굴에 대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CJ올리브영

### 헤어·바디 상품 확대

CJ올리브영이 스킨케어 부문을 기초 화장품에서 헤어와 바디 관련 제품군으로 본격 확장한다.

CJ올리브영은 ‘올스킨 올케어’ 캠페인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올리브영은 오는 7월 7일까지 인기 헤어&바디케어 상품군을 최대 43% 할인한 가격으로 선보인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5일간 각종 기능성 헤어&바디케어 상품을 대거 선별해 ‘클린 업! 특가’와 ‘데밸업! 특가’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 ‘올영장’ 팝업 매장도 운영된다. ‘올영장’은 두피와 몸 피부가 주인공이 되는 올리브영의 특별한 목욕탕을 주제로 한 체험 공간이다.

올리브영은 두피와 전신 피부는 전체 피부의 약 98%를 차지하는 만큼 얼굴 피부처럼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청하 기자